

한국에서의 조직신학 (개혁신학) 이 걸어온 길

이 보 민

한국에서의 조직신학은 1930년대 이후에 박형룡박사가 평양신학교에서 한국인으로서 교수함으로 어떠한 형태를 이루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의 신학은 Lous Berkhof, Charles Hodge 등의 신학을 그대로 소개함으로써 그 어떤 의의를 확립하는 신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Berkhof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칼빈주의를 확립하는 신학으로서 대개 그 내용에 있어서는 박형룡박사가 그의 교의학 series에서 전개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신학은 Calvin이 말한 것을 비교적 문자적(如字的)으로 따른다고 볼 수 있다. 그 특징은 두 말할 것도 없이 소위 Calvin의 五大교리에 따르는 신학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전적부패(Total corruption)를 그 교리의 출발점으로 하며, 그 타락한 인간이 물론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할찌라도 그대로 어느 정도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다고 하는 소위 종교의 씨(seed of religion)의 교리를 그 근간으로 삼는다고 하겠다. 중세 Schola 철학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였던 신 존재증명(proof of the existence of God)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못되는데, 그 이유는 타락한 인간에게 있는 신을 의식할만

이보민 · 韓國에서의 組織神學(改革神學)이 걸어온 길

한 요소가 신적인 계시(그것이 특별계시이든, 일반계시이든 간에)를 통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도 그에게 감사치 않는다고 오히려 배격할 뿐이며, 그로 인해 새삼스럽게 신 존재증명을 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 대신 신을 의식한다는 전적 타락한 인간이 본래 타락 전에 어떠한 인간이었으며, 또한 타락 후에는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를 중히 여기는 것이 곧 이들의 신학이다. 즉,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칼빈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형상이란 Luther에서 처럼 전적으로 영적인 것이나 또는 정신적인 것에 국한되어지는 않는다고 할찌라도 그래도 인간 속에 본래 들어있는 原義(original righteousness)라고 하는 것으로 여겨지므로서 사실상 하나님의 형상은 별 수 없이 인간이 본래 지니고 있던 어떠한 요소인 것처럼 이해되었었다. 때로는 하나님의 형상은 신약성경에 나오는 의와 지식과 거룩으로 설명되기도 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특정부분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인간에게 있어서의 전적 타락이란 사실상 모호한 것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이 된다. 즉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면서 무엇인가 또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 또는 은사가 거주할 장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물론 그와 같은 은혜의 장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적극적인 효과를 발휘하여 타락한 인간 가운데서도 선을 이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찌라도 타락한 인간 가운데서 악의 극렬함을 어느 정도 제어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원의 또는 의, 지식, 거룩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형상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할찌라도 그래도 인간 속에는 아직 무언가가 남아서 소위 은혜의 장소가 되어지며, 그것이 악을 제어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는, 사실상 전술한 것과 같이 칼빈의 전적 타락의 교리는 말만의 전적인 타락인 것 같고, 따라서 애매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칼빈주의 신학의 모호함이 Berkhof에 나타나며, 아직 그

의 신학을 소개하는 정도에 머문 박형룡박사의 조직신학 역시 그러한 모호함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현재에는 합동신학원의 신복윤교수와 총신의 박아론교수가 이전에 박형룡교수가 하던 신학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이와 같은 칼빈주의 신학의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근대 화란의 개혁주의 교리학은 약간의 다른 면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1950년대 이후 화란에서 공부한 신학자들이 귀국하면서 그러한 근대적(현대적이라고 하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음)인 개혁주의 신학을 한국에 소개하기 시작했으며, 그에 따라 국내에서의 조직신학의 양태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신학을 한국에 소개하기 시작한 조직신학자는 고신대학의 이근삼박사를 위시하여 현재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는 차영배교수 등이 있는데, 특히 차교수는 바빙크의 신학을 소개하는 series의 책을 저술함으로써 한국조직 신학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근대 화란개혁주의 신학이 전통적인 칼빈주의 신학과 비교하여 특별히 다른가? 확실히 근대 개혁주의 신학은 칼빈이 주장한 전적타락의 교리를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 같다. 그것의 설명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로 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단순히 원의, 의, 지식, 거룩이라고 어떤 개념으로 설명할 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교리는 모호하게 되며, 이 교리가 모호하게 나타날 때 인간은 그리스도의 중보 은혜를 떠나서 자력으로 어느 정도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된다. Bavinck와 같은 근대적 의미의 개혁주의 신학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개념으로 보다는 서술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하나님의 형상교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서술적인 표현을 나타내는 말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능력을 가진자라는 말이라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능력자라고

하는 말은 자질적인 특징(substantial character)에 있어서 하나님과 닮은 그런 자질을 가졌다는 말은 아닐 것이다. 자질에 있어서 영이신 하나님과는 크게 다른 인간이지만 인간이 가진 온갖 자질들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인간 스스로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그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능력을 통해서 인간인 우리들을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의 능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이다. 또한 그와 같은 뜻에서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즉, 바빙크가 주장하듯이 인간이 자기의 일부분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는(to have) 것이 아니라 그 자신 전부가, 아니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인(to be)것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 말은, 타락하기 이전에 자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었던 인간이 타락 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나타내기만 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되고 아울러 자기를 위하는 것이 되게끔 되었다는 것이다. 그럴 때에 타락하기 전의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부분(육신적인 부분까지도)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인간이 타락했을 때에 이제 그 인간에게 있어서의 모든 부분이 동원되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었으니 인간에게 있어서의 어떤 부분들(영혼, 육신,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도 타락되지 않은 부분이 없게 된 것이다. 또 그 타락했다고 하는 바의 정도는 “全的”이라고 불리울 만큼 정반대 방향으로 바뀌어 버린 명실상부한 전적타락인 것이다. 즉 인간 안의 어떠한 부분도 타락안된 부분이 없을 뿐아니라 그 타락의 정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의 180도 방향전환이 보이는 것처럼 전적인 것이다. 이 만큼 전적타락의 교리는 전혀

모호함이 없이 분명한 뜻을 갖게 되는 것이고, Bavinck 的인 신학이 그런 뜻에서 칼빈신학 이상으로 개혁주의적인 신학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한 가지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인간이 자신의 모든 부분에서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자질적 성격(substantial character)이 부패 타락했다고 볼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인간은 타락 후에도 그가 가진 자질에 있어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건전한(?) 자질을 가졌어도 인간은 타락했으며, 그 건전한 자질 그 자체도 그 자질에서 발휘되는 능력이 하나님을 반대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된 것이다.

Bavinck를 위시한 근대 화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와 같은 인간의 건전한 자질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연히 타락 이후에도 나타나는 인간의 문화적인 행위에 관심이 많으며, 아울러 기독교 문화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개혁주의신학에 대해서 좀더 개혁주의적이며, 칼빈적임을 자처하면서 나타나는 신학은 Karl Barth의 변증법적 신학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신학은 모름지기 스스로를 가장 칼빈적이며,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데 크게 보아 실존주의적인 신학으로도 보이며, 한 마디로, 모든 현대 신학을 직접 간접으로 대변하는 신학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런 Barth적인 신학을 소개하며, 전하는(비록 자기 자신은 Barth 주의자라고 자처하지 않지만) 한국의 조직신학자로서는 장신대학의 이 종성박사가 있는데 그는 이미 「신학적인간학」이라는 책으로서 한국 조직신학계에 공헌을 하고 있다.

Barth의 신학의 특징은 나름대로 가장 개혁주의적인 성격을 지니고자 함인데, 그것은 Bavinck 的인 신학이 충분히 천주교적인 신학을 탈피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즉 전술한 바빙크적인 신학은 인간이 그 자질에서부터 나오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가지

게 하든지 하나님을 비워하는 관계는 기적들끼리 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결국 인간의 어떤 자질 때문에 타락여부가 결정되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타락여부가 자질에 관계된다는 것은, 결국 인간의 자질이 타락 후에도 어느 정도 남아 있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다면 결국 인간의 타락은 전적인 타락이 될 수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그럴 때에 바빙크적인 신학 역시도 진정한 개혁주의적 신학이 못된다는 것인데 발트적인 신학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자질에서 나온다는 인간의 능력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로 생각하고자 한다. 인간 개개인이 가지는 자질적인 요소가 전혀 무시될 수 없는 관계 그 자체로서 절대적인 관계란 소위 「너와 나」의 관계라고 불리우는 것인데 이것은 그 관계를 맺고 있는 당사자들의 자질이 어떠하든지 그 관계를 파괴하거나 손상시킬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 관계는 절대적인 것이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바로 그와 같은 절대적인 관계 속에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그런 관계를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일이 아니고 이와 같은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망각하는 일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인간이 이와 같은 너와 나의 관계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은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이율배반(二律背反)적인 어려운 입장에 서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즉 인간이 진정으로 너와 나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은 인간이 한편으로는 전체에 참여하고, 또한 편 철저히 개별자가 된다는 것인데 이 둘은 모순이며, 모순은 인간에게 갈등을 일으킨다. 그렇게 될 때에 인간들은 그런 갈등을 일으키는 너와 나의 관계를 싫어하거나 잃어버리고자 하게 된다. 그러나 인간은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 속에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갈등 속에 인간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은 타락한 존재라는 것이다. 너와 나의 관계 그 자체가 타락일 뿐이고, 이 관계 자체를 본래 좋은 상태에서 나쁜 상태로 바꾸게 한 인간의 어떤 자질이란 있을

수 없다. 즉 타락 이전에는 인간의 모든 자질도 좋았고, 그에 따라 관계도 좋은 관계였다고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것은 곧 인간의 너와 나의 관계는 인간의 전적타락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으로서 타락이 전적인 상태가 없는, 언제나 타락된 상태를 말할 뿐이다.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인간의 자질적인 요소가 갖는 의미를 배경하는 발트의인 신학은 바빙크나 카이퍼 등의 개혁주의 근대 신학이 인간의 자질적인 건전함에서부터 문화에 대해 시나치게 관심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카이퍼는 타락한 인간의 행위라고 할찌라도 그것이 문화행위라고 한다면 신적인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볼 정도이다. 그런 불신자들의 문화행위와 기독교인들의 문화행위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의 문제 등에서 카이퍼 등은 어떤 이해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사실 진정한 신앙인에게는 문화행위란 없고, 신앙행위가 있을 뿐이고, 단지 그런 신앙행위 속에 문화적인 국면(aspect)이 있을 뿐인데 그와 같은 신앙인의 행위와 불신자들의 문화행위를 신적인 은혜의 일환이라고까지 생각하는 것은 불신문화에 대한 지나친 예찬론을 펼치는 일이라고 하겠다. 그에 비해서 인간의 자질적인 요소를 전적으로 배경하는 발트의인 신학은 적어도 문화예찬론에는 빠지지 아니 한다.

지금까지 대개 조직신학의 측면에서 한국에 소개된 신학을 생각해 보았다. 개혁주의 신학계통을 따져 볼 때에 대개는 좋은 성경적 신학이었으나 Bavinck와 Kuyper 적인 신학의 문제점은 문화행위와 신앙행위의 혼동에서 오는 것들이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의 조직신학은 Bavinck, Kuyper 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선시키는 단계까지 발전해야 할 것이다. 고신과 총신에 있어서의 조직신학은 화란 유학파 교수들의 영향으로 Bavinck, Kuyper 적인 신학으로 되어 가는데 그러나 그들을 답습만을 할 것은 아니다. 참된 기독교 문화관을 포함한 Bavinck, Kuyper 신학에 대한 수정 작업이 계속 추진되어야 하겠고, 그

것은 앞으로도 우리 조직신학의 큰 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 우리의 조직신학은 Barth적인 조직신학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Barth 신학은 타락 이전을 부정하므로써 엄청난 잘못을 범하는데 그것은 실로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타락 문제에 대해 문제를 발견한다는 것은 단지 병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발트를 위시한 많은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하는 것은 더욱더 복합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지금 국내에서 활약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대부분 Barth 이후의 조직신학을 소개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들을 비판하는 작업을 한국에서의 올바른 조직신학이 행해야 하는데 아시아연합신학대학의 한철하고교수가 오랫동안 조직신학자의 입장에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한국에서의 조직신학은 아직도 서구신학을 단계에 따라 소개하는데 머물러 있는데 위에서 말한대로 자유주의 신학을 잘 분석하여 그것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주어야 하겠고 칼빈주의 신학에서의 문제점 또한 솔직히 시인하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노력을 통해 조직신학의 발전을 더욱 꾀하여야 할 것이다. <부교수·신학박사>

金炳元 博士 著

목회학 (85. 10 新刊)

서울 : 한국개혁주의 신학회, 1985. 신국판 342쪽 양장 4,700원
반 양장 4,000원

한기태 博士 譯, Gerald Corey 著

상담과 심리요법의 이론과 실제 (85. 11 新刊)

서울 : 성광문화사, 1985. 신국판 반양장 376쪽 값 5,000원